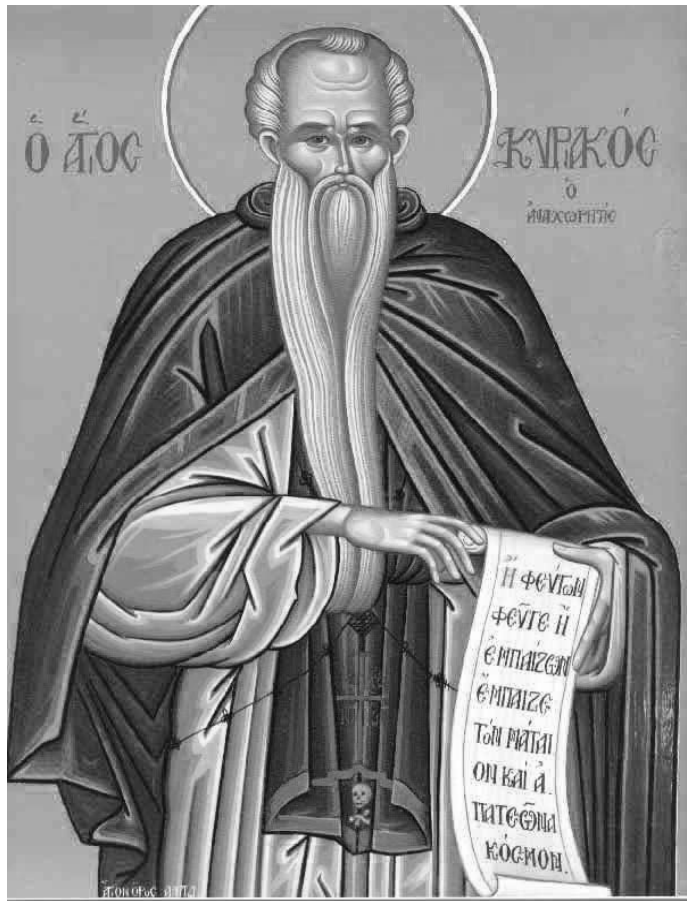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끼리아코스 수사

루가 제 1주일

성 깔리스트라토스 순교자

제 7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7조 부활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고린토 후 6:1~10 / 봉독서 257
- 복음경 : 루가 5:1~11 / 122, B 6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끼리아코스 수사

절제와 윤리적으로 깨끗함은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과 장수의 큰 요인이라는 것이 성인들의 역사와 고백 그리고 학문에서 증명되어왔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늙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대부분의 육체적인 병들은 비윤리적인 잘못된 방식의 삶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질서에 따라 삶을 살고, 육체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멸시

키고 부끄럽게 할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정정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9월 29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끼리아코스 수사(5세기~6세기)입니다. 성인은 건장한 남자였고, 107세에 안식하였으며, 육체의 어떠한 부분과 장기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정결함과 함께 나아갑니다.

정신의 분산

기도시간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생각이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영적 힘이, 위로가, 희망과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찬예배 때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사중의 성사인 성찬예배를 드리는 이 신성한 시간 때 사탄은 우리의 정신이 기도로부터 떨어지 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과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사탄은 타들어가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때 우리의 정신이 집중될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합시다. 다윗처럼 기도시간에 말합시다 :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옵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시편16:8)**

2.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서나 다른 영적인 책을 봅시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을 풀듯이 기도의 투쟁 전에 준비하고 예열하는 것입니다.

3.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것

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기도는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

간 본성의 나약함의 유혹들과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외국어와 같습니다. 외국어는 할수록 더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할수록 더 사용하길 원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좋아하게 되고, 더 사용할수록 더욱더 당신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됩니다.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하는지, 기도에서 무엇을 간청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을 모아주소서. 우리의 영적 삶의 큰 중심인 기도의 올바른 인도자가 되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기도를 더 사랑하고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주고, 천국을 사라!
(자선에 대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가르침)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이 낙원을 팔려고 와서 말합니다:

‘제게 빵(또는 밥)을 줘 주고, 천국을 얻으세요. 제가 입을 옷을 줘 주고, 영원한 왕국을 얻으세요. 제게 돈을 줘 주고, 천사들의 기쁨을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빵(이나 밥)을 줘 주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빵(또는 밥)이 없나요? 그럼 돈을 줘 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나요? 그럼 입을 옷을 줘 주세요.

- ⇒ 한 잔의 물을 주세요.
- ⇒ 밥 한 그릇을 주세요.
- ⇒ 반찬도 좀 얹어서.
- ⇒ 비록 적은 양이어도 무언가 좀 주세요.
- ⇒ 그냥 주세요.
- ⇒ 주고, 낙원을 사세요!
- ⇒ 그리스도를 옷 입히세요.
- ⇒ 그러면 그분이 심판의 날에 당신을 옷 입히실런지도 모르니까요.
- ⇒ 여러분의 헐벗은 형제, 자매의 얼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가려주세요.
- ⇒ 어찌면 심판의 날에 그분이 여러분을 가려주실지도 모르니까요.
- ⇒ 오, 거룩한 자선이여!
- ⇒ 당신은 오늘 한 번의 자비를 베풀고, 천배나 많은 자비를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추석 예배 안내

오는 10월 1일(목)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는 추도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풀리바를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에 문의해주시시오.(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추도식 예배 참여 가능성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올해 10월 3일 토요일에 있을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성찬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 지역성당에서 드릴 것입니다.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별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예금주 : 한국정교회유지재단

